



## 아이스크림에 豆乳 사용 줄이기로

— 우유소비촉진위해 8 월초 부터 80% 우유로 대체 —

아이스크림제조업자들은 우유재고량이 점차늘어 남에 따라 두유를 넣어만들고 있는 1 백원짜리 아이스크림류 생산을 대폭줄이고 우유를 넣는 아이스크림 생산을 늘리기로 했다.

농수산부에 따르면 유가공업계가 아이스크림제조원가를 낮추기위해 값이싼 두유를 사용한 아이스크림류를 생산해 왔으나 정부의 우유소비 촉진정책에 호응하여 오는 8 월 5일

까지는 豆乳사용을 반으로 줄여 우유로 대체하고 6 일부터는 80%를 대체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는 1 백원짜리 아이스크림류의 인기가 높아 현재 하루 평균 3 백 90t의 豆乳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우유로 대체할 경우 월 4 백t(原乳기준), 年 4 천 5 백 t의 우유소비가 증가된다.

## 국제곡물시세 상승추세

— 북미지역 한발로 흉작예상되 —

국제 곡물가격이 최근 크게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농수산부가 조사한 국제 곡물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6 월 평균 옥수수가 t당 FOB 1 백 56달러 29센트로 지난 5 월 1 백 55달러 92센트보다 37센트밖에 오르지 않았으나 3 월 1 백 50달러, 4 월 1 백 52달러 94센

트보다는 t당 3~5달러가 올랐으며, 대두는 6 월평균 t당 2 백 82달러 65센트로 지난 4, 5월의 1 백 72달러~1 백 73달러 수준보다 t당 9~10달러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국제 곡물시세가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는 원인은 최근 북미를 휩쓴 한발로 세계 곡물생산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는 데다 산유국의 석유무기화에 대응하여 미국 등 식량생산국들이 곡물의 무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 유채실(油菜實)배정 대두수입량 기준 할당

### — 농수산부, 인수거부하면 대두수입불허 —

올해 유채실 배정문제를 둘러싸고 진통을 겪어온 농수산부는 대두가공처리업체에 올해 대두수입계획을 기준으로 유채실을 배정 할 당하여 인수하도록 확정했다.

농수산부 당국에 따르면 올해 유채 생산에 상량은 2 만 9 천 3 백여t에 달해 정부에서 구매해 주지 않으면 가격폭락으로 생산비도 건지지 못 할 형편이므로 농협으로 하여금 kg당 3 백 15원(2 등품)씩에 1 만 5 천 t 을 구매하여 대두가공업체에 배정 인수 하도록 했으나 가공업체들이 결손을 이유로 유채 인수를 기피해 왔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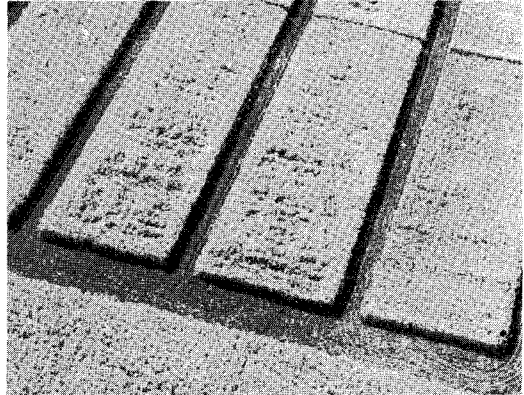
이에따라 유채를 인수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내년에 대두수입추천을 해주지 않는다는 방침아래 금년 1 월부터 현재까지의 대두수입 실적과 앞으로 연말까지 수입계획량을 기준으로 동방유량, 제일제당, 삼양유지, 동명식품 등 4 개 업체에 할당. 인수하도록 했다.

그런데 대두가공처리 업자들이 유채인수를 기피하는 원인은 농협의 유채 구매가격이 산

지 시세보다 43%나 높기 때문에 이 가격으로 인수하여 기름을 짤 경우 결손폭이 너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대두수입실적과 앞으로의 수입계획량을 기준으로 한 업체별 유채배정량은 다음과 같다.

- 동방유량 = 8 천 7 백 t
- 제일제당 = 3 천 t
- 삼양유지 = 2 천 t
- 동명식품 = 1 천 3 백 t



## 시도축산행정직 대폭증원

내무부는 육류의 수급가격안정등 일선축산행정을 원활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축산행정직을 대폭 늘렸다.

내무부는 이달부터 각시도 축정과와의 직인

을 5 백 42 명에서 6 백 12명으로 70 명을 증원 했는데 증원대상은 4급 乙류 행정직이다.

내무부가 이번에 축산행정직을 이같이 늘린것은 최고기의 가격연동제 실시에 따른 지방의 육류가격조사와 수급동향 파악등 일선 축산행정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 Format 컴퓨터, 세미나 개최

— 오진양행주최 대주산업에서 —

오진양행(대표: 정진국)은 지난 7월 22일(화) 오전 10시 부터 제 2회 Format Computer - Seminar 를 대주산업(주)(서울시 중구 충무로 2가) 사무실에서 개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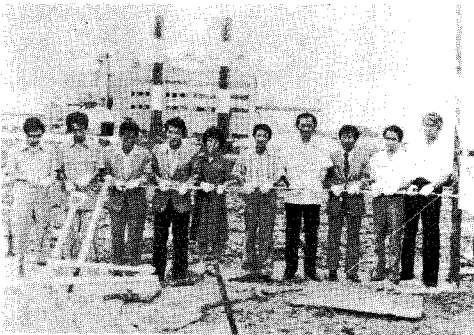
국내 12개 사료업체 2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세미나는 영국 Format 회사의 Edwin Jones 씨가 강사로 초빙되었으며 통역은 KIST의 김창원 박사가 수고 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영국에서 개발된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배합율작성, 원가절감, 재고관리 실험실 운영, 양돈관리, 축산 프로그램 등 복합적인 이용의 소개가 있었다.

### 부국사료(주) 인천 공장 기공식

불황중에도 판매량이 급성장하고 있는 부국사료는 지난 7월 21일 인천시 학익동의 8천평 대지에서 현대식 사료공장신축기공식을 가졌다.

공장신축은 제일산업(주)이 맞는다.



△ 기공식 테이프를 끊는 귀빈들 한호섭 사장(좌에서 4번째)이 보인다.

## 젖소도입 전면 중단키로

— 우유소비둔화 장기화 감안 —

농수산부는 우유소비 둔화 현상이 장기화함에 따라 하반기부터 젖소수입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

농수산부는 당초 올해 젖소 7천마리를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불황의 여파로 우유소비가 작년보다 줄어들어 분유재고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 상반기중에 작년 L/C개설분 1천 8백마리만 수입을 추천해 주었으며 나머지 5천 2백마리는 수입 추천을 보류, 현재와 같이 우유소비 둔화현상이 계속 될 경우 수입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작년말 현재 국내젖소 보유두수는 16만 마리에 달해 국내증식 만으로도 내년에는 19만 8천 마리로 증가 될 것으로 농수산부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 중부지역육계생산자,

### 도계법대책 건의안 제출,

— 당국, 보완책 강구중 —

중부지역육계생산자는 지난 5월 16일 본회를 통해 관계당국에 도계법 대책 건의안을 제출한 데 이어 지난 7월 2일 다시 도계법 해결을 위한 진정서를 관계 당국에 제출한 바 있는데 당국은 계속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키는 도계법의 문제점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서울지역의 도계유통은 계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굳히는 한편 도계법 실시에 따른 산지물량제한, 가격하락 현상등 육계생산자의 피해를 막기위해 다각적인 보완책을 강구하고 운영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축산물 유통마진 판매가의 26% 차지

### — 대한상공회의소 분석 —

국내 축산물의 유통경로가 지나치게 복잡해 유통비용이 판매가격의 평균 25~26%나 점하고 있어 생산자와 최종소비자가 큰 불이익을 겪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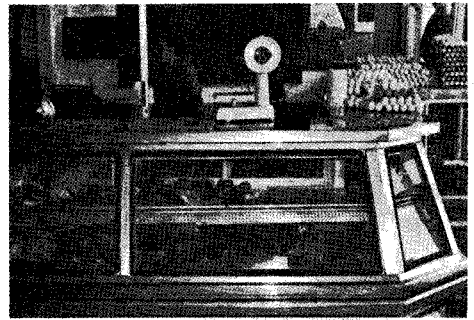
대한상공회의소가 실시한 축산물 유통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축산물시장 구조는 가축시장의 경우 수집상, 중계상, 반출상, 소비시장에는 반입상, 중계인, 소매상 등 유통경로가 평균 5~6 단계에 이르고 유통과정도 지역과 품목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때문에 축산물 유통과정에서 발생 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높아져 소 및 돼지의 경우 제통출하시 이윤을 포함시킨 총유통 비용은 최종소비자 판매가격의 26.5%, 중간상인 반출시에는 25.7%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총 마진을중에서 유통 단계별 마진의 구성비를 보면 수집 및 반출시의 유통마진이 15.5%, 소매상의 유통마진이 74.5%나 되

는 것으로 분석돼 소매상의 이윤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상공회의소는 이에따라 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대도시에 축산물의 수집과 분산을 맡을 축산물 도매시장을 설치, 이 시장내에서 일체의 불완전 경쟁요인을 행정력으로 제거시키는 한편 중간상인의 과다마진을 축소시키기 위해 대형 슈퍼마켓나 일반 종합식품점 개설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 축산물의 유통마진폭이 소매가의 3/4을 차지. 가격안정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 육가공제품 시식평가회

### — 축진, 돼지고기 통조림 등 소개 —

축산진흥회는 돼지고기의 원활한 수급과 국민 식생활 개선책의 일환으로 돼지고기 육가공제품 시식평가회를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소재 한국식생활, 개발연구회에서 개최하였다.

지난 7월 8일(화)오후 4시에 열린 본 시식평가회는 국내 최초로 축산진흥회에서 개발 생산된 돼지고기 장조림과 조미돼지고기 통조림이 소개되는 한편 통조림을 재료로 한 요리의 시식회가 있었다.

이날 시식평가회는 축산관계자를 위시한 식품 관련업계 요리전문가 등 백여명이 참석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 유제품 소비둔화 장기화

### — 전지분유 재고량 5 천 8 백여톤 —

유가공업체들은 유제품 소비둔화 현상이 장기화 되어 성수기가 되었는데도 판매가 늘지 않자 더욱 치열한 판매 경쟁을 벌리고 있으며, 지난 2월 정부에서 가격인상을 허가하여 주었는데도 아직도 출고가격을 올리지 못하고 분치 작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일부 품목은 덩핑판매로 매출 신장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유가공업체는 남아도는 원유를 거의 시

장성이 없는 전지분유로 가공하고 있는데 7월 4일 현재 각 유가공 업체의 전지분유 재고량은 다음과 같다.

서울우유협동조합	2,000t
매 일 유 업	1,100t
해 태 유 업	600t
경남부산우유조합	500t
남 양 유 업	400t
대 일 유 업	350t

등 총 5,800t에 이르고 있다.

## 농가판매가 구입가상승 못 따라

### — 농협, 4 월말 현재 변동분석 —

농가판매가격은 완만한 오름세를 나타냈으나 농가구입가격은 상승율이 높아 농촌경제를 계속압박 하고 있다.

농협이 지난 4월말을 기준으로 조사한 농가 교역조건을 보면 농가판매가격지수가 (75년 1백)작년 4월 205.1에서 2백 31.2로 12.7% 상승했으나 구입가격은 작년 4월 204.3에서 2백 57.4로 20.1%가 올랐고 작년말에 비해서도 구입가격이 0.6%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작년동기에 비해 판매가격이 떨어진 것은 맥류(0.9%), 채류(3.1)였고 구입가격이 떨어진 것은 가축류(17.8%)였으며 구입가격중 가장 큰 오름세를 보인것은 주겨비(39.8%), 피복비(37.8%), 노임(33.2%)이었고 판매가

격에서는 잡곡(37.5%), 짚제품(28.2%), 특용작물(27.7%) 등이었다.



△ 농가 판매가에 비해 구입가상승율이 높아 농촌경제는 계속 압박을 받고 있다.

## 배합사료원료 자율배정토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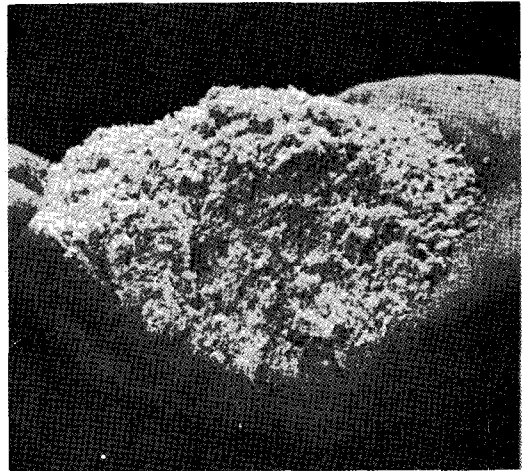
— 중소 사료공장담게 —

농수산부는 배합사료 최고가격제도를 폐지, 자율화하도록 조치함에 따라 중소사료공장이 도산 할 것으로 우려, 업체가 자율적으로 원료를 적절히 배정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도록 한국사료협회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부 당국자는 배합사료의 질을 높이고 선의의 가격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양축농가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난 6월부터 가격자율화조치를 취한바 있으나, 과다경쟁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도산사태가 야기될 우려가 있는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업체가 자율적으로 공장별 생산 능력 생산실적등을 감안하여 수입억수수 등 원료배정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사료업체는 작년 하반기부터 돼지·

닭 등 가축가격의 폭락으로 양축농가가 타격을 입게됨에 따라 사료수요감퇴로 불황에 빠져있는 실정이다.



△ 농수산부는 배합사료가 가격 자율화 조치에 따라 원료배정의 원활화를 기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 각군사관학교에 우유급식

— 교육기관·기업체근로자에게도 —

농수산부는 재고량이 계속 늘고 있는 우유의 소비확대를 위해 각군 사관학교를 비롯, 군 교육기관·각 부처 공무원 교육원과 산하단체·교육기관 그리고 각 기업체 근로자들에게도 우유를 공급하기로 하고 국방부와 상공부 등 관계부처와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농수산부에 의하면 이와같은 우유공급계획은 박충훈 국무총리 서리가 우유소비 확대방

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함에 따른 것으로 지난 6월말 현재 분유 재고량은 원유기준 5만 4천 t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가공업계는 물론 낙농가들이 큰 타격을 받고있어 우유소비촉진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내 우유생산량은 올들어 지난해 보다 16%가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소비량은 전체생산량의 82%에 지나지 않아 적극적인 소비방안이 나오지 않는 한 재고량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농수산부는 현재 국민학교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우유급식 확대 등 종합적인 우유소비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 닭고기 시식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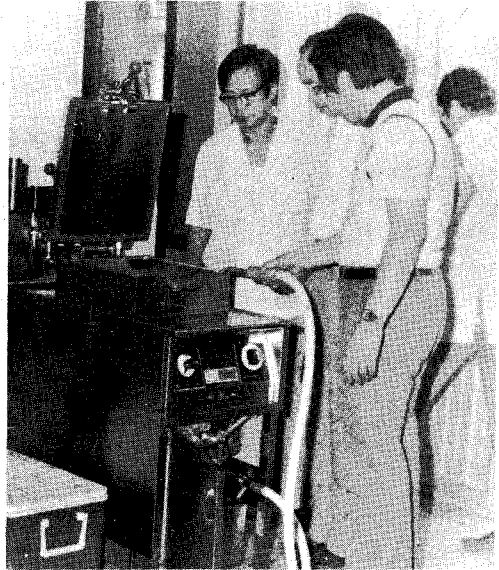
— 한협, 사무실에서 —

한협가금육종농장(대표: 박준영)은 닭고기 유통산업과 가공산업에 새로운 길을 모색코저 지난 7월 5일(토)오후 휘경동 사무실에서 닭고기와요리 시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시식회는 최근 구미등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외식산업의 소개와 캔터키 후라이드 치킨등 각종 튀김요리가 선보였으며 칠면조 요리도 소개되었다.

이밖에 튀김기(Broaster 제품)의 소개와 벅시칸스타일, 웨스턴스타일, 후라이믹스 파우더 등 각종 향미료의 소개가 있었다.

이날 시식회는 양계관계자 외 주방기기, 요리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하여 성대히 개최되었다.



△ 닭고기 요리 시식회에 앞서 튀김기를 소개하는 박준영 사장

## 콜드·체인·시스템화 뒷받침돼야

— 성능·마모율 외산비해크게높아 —

제빙·냉동기의 수요가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질이 떨어져 수입품의존율이 높아 정부의 지원책이 요청되고 있다.

수산청에 따르면 정부의 제빙냉동기제 및 부품의 수입규제와 각종 육성자금 지원으로 국산 고속냉동기제작업체가 4 개소로 늘어났으나 이들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이 외국산에 비해 기계·재질등에서 오는 성능저하 및 마모율이 높아 대부분이 구매를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인은 이들 업체가 자금압박으로 대부분 주문생산에 의해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가동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부품의 원활한 생산, 조달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국산냉동기 제작업체가 생기기 전에 외국회사들이 턴·키방식으로 제빙·냉동설비를 하여 국내기술자의 경험이 부족했고 전문기술자 배출이 적어 기능인력 양성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수산청의 한 관계자는 냉동기제작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외국산수입규제, 선진기술 습득, 생산규모 확대에 따른 부품생산원활, 노후시설대체 의무화, 수산물 유통구조 설비 콜드체인·시스템화의 법적 뒷받침등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유가공협회 임시총회 개최

— 최영규회장(서울우유) 유임 —

유가공협회는 7월 25일 임시총회를 열고 임원을 개선하고 정관일부를 개정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 최영규 현 회장과 윤래병(비상근) 정봉택(상근) 두 부회장을 유임시키고 김복룡 매일유업사장과 임영대 매일유업사장을 비상근부회장으로 선임했다.

그리고 정관일부를 고쳐 현 13명으로 되어 있는 임원수를 16명까지 둘 수 있도록 했다.

새로구성된 임기 2년의 집행부는 '다음과 같다.

회장 = 최영규(서울우유 유임)

부회장 = 윤래병(한국야쿠르트 유임) 김

복룡(매일유업 신) 임영대(대일유업 신)

정봉택(상근 유임)

상무이사 = 김남용(유임).

## 하바드 기술세미나 개최

— 신기농장주최 7월 19일 오후에 —

하바드 원종계 농장인 신기농장(대표: 이상윤)에서는 미국 하바드 농장의 스미스 부사장의 내한을 맞아 불황시에 호황을 준비하는 신념으로 지난 7월 19일 오후 엠버서더 호텔에서 하바드 기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국내 하바드종계 부화장, CC농가, 학계, 관련업체 약 100여명이 참석 성황을 이룬 이날 세미나에는 일본 하바드농장의 축산부 이시다 부장과 오꾸무라 차장이 함께 소개되었다.

한편 동사 부사장인 Smith 박사는 브로일러산업은 앞으로 10~20동안 매우 밝은 전망을 보일 것이라고 전제하고 현재 중점개발 목표를 가슴육비육에 두고 1985년에는 46일 사육에 1.82kg, 사료효율 1.9를 목표로 육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하며 새로운 육종 개발사항에 언급 미국에서는 현재 생화학적 육종(Biochemical genetics)과 면역학적 육

종에도 새로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외소형 종계를 개발, 사료 소비를 20%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질병문제에 관하여 슬라이드를 통해 포도상구균증등 다수의 질병에 관해 소개하고 그 처방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이날 통역에는 대한제당 무지개 사료의 김진의 부장이 수고 하였다.



△ 성황리에 개최된 하바드기술 세미나



## 6 월 중 양계용 배합사료 16만 6천 8백 여톤 생산

— 전월대비 2.9% 감소 —

한국사료협회(회장: 정태원)가 발표한 6월 중 양계용 배합사료 생산실적은 16만 6천 8백 29톤으로 전월대비 97.1%로 밝혀졌다.

품목별로는 육추사료가 전월대비 3% 증

가한 2만 4천 5백 69톤, 산란계 사료가 9.2% 감소한 8만 8천 5백 34톤, 육계사료가 6.8% 증가한 5만 3천 7백 26톤으로 각각 밝혀졌다.

금년도 양계용 배합사료 실적은 다음과 같다.

\*금년도 양계용 배합사료 생산실적(단위 M/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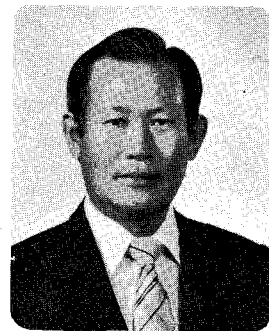
월별	육 추 사 료				산 란 계 사 료				육 계 사 료			누 계	
	초생추	중추	대 추	소 계	초 기	중기	말기	종 계	소 계	전 기	후 기		소 계
1	2,438	7,209	17,025	26,672	88,385	36	117	23,839	112,437	7,785	16,335	24,120	163,229
2	2,535	4,241	13,999	20,775	63,469	149	140	16,674	80,432	6,077	5,329	11,406	112,613
3	4,237	4,522	11,137	19,896	71,804	158	140	20,179	92,281	12,890	9,909	22,799	134,976
4	4,789	6,427	8,775	19,991	65,577	12	161	24,706	90,456	17,601	21,436	39,037	149,484
5	4,864	8,275	10,709	23,848	68,967	27	197	28,356	97,547	19,956	30,332	50,288	171,683
6	3,738	8,137	12,694	24,569	61,986	65	353	26,130	88,534	19,941	33,785	53,726	166,829

### 축산진흥회장에

김일로 전부회장 승진발령

축산진흥회장에 전 부회장 金一魯씨(사진)가 승진 임명되었다.

김회장은 경북경산태생(당 50세)으로 고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여 농림부 훈련원 학생과장, 축정과장, 총무과장, 농지국장, 축산국장, 기획관리실장, 국립종축장 장을 역임 지난 '78년 3월 축산진흥회 부회장에 취임한 후 이번 회장에 승진 발탁되었다.



(김일로 축산진흥회장)

## 산지돼지값 계속오름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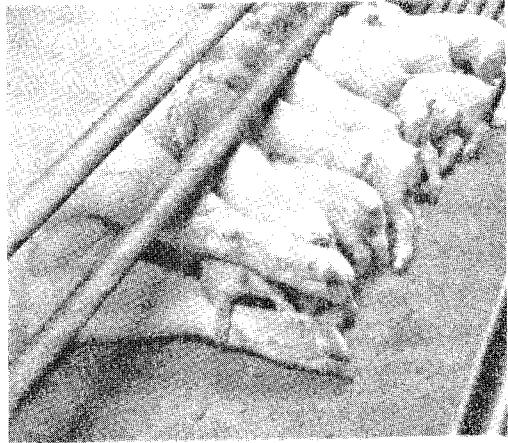
— 비수기 불구 소매가격인상 불가피 —

여름철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산지 돼지 값이 계속 오름세를 보여 6백g에 1천 2백원 하는 돼지고기값이 더 오를 기미를 보이고 있다.

7월 25일 농수산부 당국에 따르면 지난 6월 산지의 돼지값은 평균 90kg 한 마리에 7만 8천원 선이었으나 최근에는 8만 2천 원으로 올라 도매시장의 저육경락가격이 지난 6월의 kg당 1천 2백 50원~1천 3백원 수준보다 오른 1천 4백원 선에 형성되고 있어 연동제에 의한 소매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최근의 산지 돼지값이나 도매시장경락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면 서울의 경우 소매가격이

1천 2백원에서 1천 3백원으로 조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여름철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산지 돼지고기 값이 계속 상승 소매가격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

## 삼성물산, 제약업진출키로

— 조미료 생산과정서

기초원료 의약품개발 —

삼성물산이 제약업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보건사회부에 의하면 삼성은 지금까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항암제·항생제 등 원료의약품의 수입대체를 위해 기초 원료의약품을 개발 생산, 국내제약 업계에 공급키로 하고 최근 제약업 허가신청을 냈다는 것이다.

보사부는 항암제 등 원료의약품이 생산, 공급 될 경우 수입대체효과가 어느 정도 인지를

신중히 검토한 다음 이의 허가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측은 항암제 등 기초원료 의약품의 개발은 현재 시판되고 있는 핵산조미료 아이미의 제조과정 가운데 미생물 발효과정서 추출한 국내 최초라고 지적, 수입대체 효과를 감안해 이의 제조허가가 나올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의약품 제조업 신규허가가 묶여있는 핑계로 이에대한 처리를 둘러싸고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육류소비패턴 크게 변화

— 우육 22% 감소, 돈육 32% 증가 —

올들어 육류의 소비패턴이 크게 달라졌다. 농수산부가 조사한 최근의 육류수급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하루에 쇠고기 5백 50 두~6백두, 돼지고기 2천 5백두가 공급되고 있는데 작년 이맘때보다 쇠고기는 22%가 줄어들었으며 돼지고기는 상대적으로 32%가 늘어났다.

육류의 소비패턴의 이같은 변화현상은 불경기를 반영한 것으로 소비자들이 가계절약을 위해 비싼 쇠고기보다는 값싼 돼지고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며 특히 쇠고기 대량 소비처인 불고기 갈비집등 불황이 심하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 각도별 보리밥 식단발표와 보리요리시식회

— 한국식생활 개발연구회 주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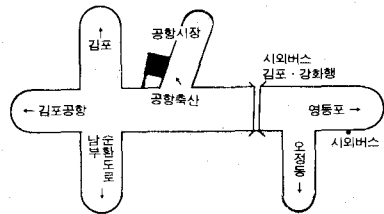
한국식생활 개발 연구회 (회장 : 왕준련)는 7월 22일 영양가 있는 보리의 혼식을 장려하고 향토별미 보존책의 일환으로 각도별 보리밥 식단발표회 및 보리요리 시식회를 동연구회 실험조리실에서 가졌다.

정중택 농수산부장관, 김일로 축산 진흥회장을 비롯하여 2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룬 이날 보리 요리 시식회에는 각도별 보리밥 상차림외에도 20여가지의 보리를 이용한 주식들이 전시되어 관심을 모았다.

## 공항축산약품상사

\* 축산관계서비스 일체 \*

- 출하알선 · 도서구비
- 각종 질병 세미나  
(영사기구비, 유명강사 초빙)



효율적인 축산관리를 위하여  
성심껏 봉사하겠습니다.

수의사 : 이 경 선  
김 호 용  
이 중 용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621-12(공항로타리) ☎ 66-0510

## 축산기술 세미나 개최 예정

— 연암축산전문대에서, 축산당면과제 해결위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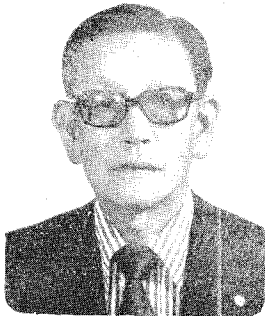
연암축산전문대학에서는 우리나라 축산계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과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얻기 위해서 오는 8월 12일(화)부터 13일까지 2일간에 걸쳐 동대학(충남 성환소재)대강당에서 축산 기술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참석범위는 전국의 축산지도자(100여명) 모두이며 숙식은 동대학에서 제공된다.

발표주제와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1. 80년대 한국낙농업의 전망과 안정화 방안  
.....박영인(USFGC)
2. 축산물의 가격안정 정책..... 윤효석(전국대)
3. 사료자원 개발의 현황과 추세...맹원제(중앙대)
4. 닭의 전염성 질병과 그 예방 대책  
..... 원중대(연암축전대)
5. 돼지의 사육관리.....연정웅(연암축전대)
6. 가축개량의 현황과 전망.....오봉국(서울대)
7.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방안  
..... 섬동집(농촌진흥청)
8. 전문대학 축산과 교육과정의 바람직한 운영방안  
..... 김성동(문교부)
9. 산업현장에서 본 전문대학 축산과 졸업생에 대한 소고..... 유희진(세일종축)외 2인

### 한국낙농협회장에 김운형씨 피선



(김운형 낙농협회장)

한국낙농협회는 전후상회장의 급작스런 별세로 인하여 공석중에 있던 회장직에 전 부회장 김운형(세정목장)씨를 선출했다.

지난 7월 3일 동회 사부실에서 개최된 임시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김운형 회장(당 72세)은 광주 사범대학을 졸업한 후 동

아성유 유한회사, 남북 농림개발<주>, 협동계지공업<주>등 이사장을 역임하고 지난 1971년부터 낙농을 시작해 78년에 동회 부회장에 피선된 바 있다.

### 업계 단신

○ **농진청 가축위생연구소**: 값이 싸고 생산및 접종방법이 간편한 광견병예방약 개발, 개뿐 아니라 소·말·양·고양이에게도 면역이 가능한 신예방약은 어린 새끼돼지의 콩팥세포를 조직배양하여 「바이러스」를 증식시켜 만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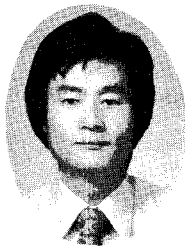
○ **고려헬트<주>**: 전남지역 양축가를 위해 전남축산기구 종합센타에 전남대리점 개설

☎ 광주(56) 5946 ~7

○ **중앙약품(대표: 김무진)**: 미국의 사료향미료 및 향품광이제 메이커인 Feed Flavors Inc.사의 부사장 Knauss 씨를 초빙 6월 13일부터 22일까지 배합사료회사를 순회, 배합사료의 사료향미료 및 향품광이제 응용에 대한 협의를 실시.



(Mr. Knauss)



(이 관 범)

○ **제일제당배합사료 광주서비스센터**: 전남지역 사료관측과 축산인들의 이익증대를 위해 이관범씨(본회 전남지부 총무, 원국사료 서비스센터)가 광주시 서구 월산동 55-3 (양계협회 전남지부 2층)에 제일제당배합사료 서비스센터 개설  
☎ (3)8226 (4)6607 (참고) 4-4727

○ **신화무역상사(대표: 조성웅)**: 농장용정수기, 여과장치, 경수연화장치 및 용수처리에 필수적인 각종기기 수입업무 개시. 주소: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163-1 (풍한빌딩 601호) ☎ (777) 76777

○ **대한제당<주>(대표: 민중기)**: 양육가 서비스를 위해 신속하게 최신의 축산기술정보를 보급할 사내지 "무지개축산" 창간호(1980년 7월호) 발간, 내용은 사료정보와 대중소가축의 사양기술등을 수록 12페이지, 4×6배판.

○ **왕림산업(대표: 최규철)**: 병아리상자 메이커인 동사는 새로운 종이깔이를 개발 특허 출원중 연락처: 서울시 중구 오장동 206-24 ☎ (266) 6896

○ **연일화섬<주>(대표: 안상용)**: 사세확장으로 지방연락처 개설  
평택☎ (2) 5430 안성☎ 4189 천안(2) 58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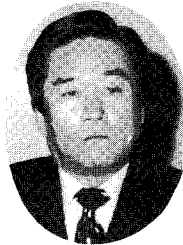
○ **유로산업(대표: 김시현)**: 신제품 프라스틱 병아리 박스를 개발 판매중  
연락처: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450-25  
☎ (389) 7375

○ **농수산물가격안정대폐지**: 농수산부는 80년 6월부터 지난 1년간 실시해온 농수산물가격안정대를 폐지.

○ **대전신기농장**: (44) 7815~7까지로 전화번호 변경

○ **신신가축약품상사(대표: 이귀호)**: 전화번호가 (73) 2024로 변경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보현)**: 지난 4월 개최된 축산물가격에 관한 정책협의회 결과를 요약 「축산물가격정책의 과제와 방향」을 발간



(김 보 현)

○ **<주>우성양행**: 사세확장의 일환으로 제조관리 약사 김두수씨(전 일동제약)를 생산과장으로 특채하고 전화증설 ☎ 6-6689, 4276

## ● 축산 뉴우스

○ 한국기업사: 특면제조 및 판매업소인 동사는 전화국번 신설로 전화번호 변경

또 사세확장으로 구리우체국 대체구좌를 신설하고 사서함 등록.

☎ (구리, DDD 1346) 2-2203, 5010

대체구좌: 구리우체국 7830995

사서함: 구리우체국 2호



◎ 농수산부: 농업개발국 협동조합 과장에 권정현씨 발령.

◎ 제일사료<주>: 신공장 준공에 따른 사세확장으로 대표이사에 오관영(전 제일피혁대표)씨가 취임하고 영업지배인에 민태혁(전 한일사료 공장장)씨를 기용하고 서울사업소에 박인신(전대축대졸)씨를 특채

◎ 대한제당<주>(대표: 민중기): 유일 옹관축과장을 부장으로 승진발령

◎ 한일사료<주>(대표: 차두홍): 판매 부장에 이종복과장, 총무부장에 조동석구매차장을, 생산부장에 권태경과장을 각각 승진발령

◎ 삼일제약<주>: 영업부에 김용성(전대축대졸)씨를 특채.

◎ 한풍산업<주>(대표: 최죽송): 사세확장에 따라 부산사업소장에 김경식(전 한성사료, 동래축산종합상사)씨를 기용하고 본사 영업부에 정택용(전대축대졸)씨와 윤희선(서울대학교 수의대졸)씨를 특채

◎ 공항축산약품상사: 관측활동 강화를 위해 이종용씨를 기용.

## 광주부화장



## 바브콕

### B-300V



## 아바에이카

사무실

전남 광주시 동구 양림동 8-15번지

전화 ⑧ 1107-2198